

##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 개막 연설 등

발전 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토대를 꼭 마련하겠으며,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을 바탕으로 이를 갖고 해나갈 것입니다.

대구는 제가 자주 왔었습니다. 대체로 대구와 와서 여러분 접하면 대체로 별 수 있고 해서 대구 왔다가 가고 했는데 경북하고 대구는 또 다르다 보니, 경북은 왜 한 번도 안 오는 것에 대한 섭섭함이 있는가 보다 했습니다.

이의근지사가 “안오면 재미없다“고 하기도 하고, 중요하고 뜻있는 행사여서 왔습니다. 여기엔 인간적으로 신세를 많이 져서 와서 인사를 드려야 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또 신세진 사람들과만 밥 먹고 갔다고 하면 자기편만 든다고 해서 안 되고, 국민 상대로 정치해야지 아는 사람만 챙긴다고 지적받습니다. 이 지적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선거 때 도와주는 것은 인연의 문제이고, 대통령은 전 국민과 인연을 맺어야 하며, 부탁도 드리고 잘 봐 달라고 하는 게 도리여서 이렇게 왔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이상득 의원님께서 자리 같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당의원들이 와주시면 마음이 푸근해 집니다. 의견이 서로 달라 따지고 다룰 때

가 있더라도, 합의할게 많고 실제 뜻 같이 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국민 앞에서 따질 것은 따지고 합의할 것은 합의합시다. 각별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말씀 다 잘 듣고 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게 많지만 (대통령이) 해야 될 것은 하겠습니다. 우선 동북아 중심의 주도국을 반드시 성취하겠습니다. 그것을 하자면 2만 불 시대의 경제 사회를 갖춰야 합니다. 이것도 꼭 하겠습니다. 2만, 3만 불이든 지방이 실제로 어렵습니다. 심정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제 임기동안에 적어도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가 조금이라도 줄어드는 반전 계기까지는 만들어내겠습니다. 30년간 벌어진 것을 5년 내 할 수는 없을 테고 발전 할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토대를 꼭 마련하겠습니다.

여당이 국회에서 소수당이고, 그 여당의 정치적 지원도 확실하게 받지 못한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당도 장악 못하고 있는데 하겠습니다. 검찰도 자기 맘대로 못하면서 뭘 하겠습니다. 대통령 말도 안 듣는 것 같은데 하겠습니다. 국정원도 손발처럼 안 움직여 주는 것 같은데 하겠습니다. 이런데 어떻게 대통령이 2만 불 시대를 만들 것인지 하는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당은 수평적으로 협력하면 됩니다. 검찰은 대통령의 정당한 명령을 결코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검찰에 지휘권을 행사하진 않겠다는 것입니다. (검찰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과 권력을 바탕으로 이를 갖고 해나갈 것입니다. 요즘 좀 시끄럽게 보이더라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언론과의 관계에서도 권력과 언론이 유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정상화가 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있는 수준 일뿐이지 그것 갖고 대통령 권력이 약하거나, 사회가 혼란해지거나, 언론을 탄압하는 것이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정상적인 것으로 갈 것입니다. 대통령이 얼핏 보기에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해온 일을 봐서 자기 맡은 일은 다 할 것이라

고 생각해도 속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미지가 여러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초대 이승만 전두환 대통령을 거쳐 오시는 동안에 그야말로 권위 있고, 위엄이 넘치는 대통령의 모습도 좋지만 미국의 클린턴, 영국 블레어처럼 자유롭게 여유롭고, 친근하게 느끼는 대통령으로 이미지를 바꿔가겠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역대 우리나라의 모든 대통령들과 다른 점 때문에 걱정 되는 점이 있겠지만 미, 영, 독 선진국 지도자들 분위기 풍기는 대통령 시대로 가야합니다. 그 수준에 맞춰나갈 것입니다. 그런 이미지의 변화과정에서 여러분에게 조금 걱정 끼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지만 이 점을 함께 생각하고 양해하면서 변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지방 일반을 잘 살게 함으로써 아울러서 경북도 잘 될 것이지만 안 오면 재미없다고 험박까지 한 경북에 대해 각별히 지원하겠습니다.